

도약

신성우의 LEET
〈추리논증〉 기초편

Part 3. 논증 평가 유형

	법학	인문 철학	가설 실험	경제 사회	퀴즈	과학
논증 평가 (8)	2	1	3			2 (실험)

- LEET 전체 문항 중 1/5 정도를 차지
- 강화와 약화를 묻는 문제가 기본형이며
과거 ‘설득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 기출에서는 나오지 않는 추세
- 큰 어려움 없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유형.
내용에 대한 강화와 약화, 논증에 대한 강화와 약화, 실험에 대한 강화와 약화로 구분.
논증과 실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풀이 난도가 많이 쉬워짐

Part 3. 논증 평가 유형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 – **문제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 ‘부합 사례는 강화이며, 반례는 약화다.’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 ‘약화는 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문에 있어야 한다. 부정문을 만들어 비교하라.’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3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 ‘강화는 부합 내용이 지문에 있어야 한다. 술어를 찾고 패러프레이징과 함축을 의식하라.’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했음에도 그 전액을 보상’
이 내용의 부정문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인지 비교
-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없으나, 영업비밀을 넘긴 이득을 손해로 보아 회사에 배상’
‘불법행위 손해 회복과 더불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하는지 비교
- ‘피해자가 용서한 사안에서 사회적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
이 부정이 있는지 찾고,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회복하는 것’과 비교
부합내용을 비교,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 지침 제공’

Part 3. 논증 평가 유형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4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원리 적용형과 강화 약화형이 결합된 경우, 단어 하나 하나 끊어서 따져가며 판단하라.’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5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정확한 부합 및 반례가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버려라.’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지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됨.
정확한 비교가 필수
- 지문에서 제시된 사례와 다른 사례가 나타나 어떠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지문 사례와 보기 사례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
그 판단 결과가 기존 지문 판단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반례인지를 확인

Part 3. 논증 평가 유형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6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밀줄에 대한 강화 약화인 경우 밀줄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판단.**’

논증 평가 예제 3 (정답 1)

14. ㉠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여론 형성 과정에서 진실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개인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작성된 누리소통망 글이 사실과 다름에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현상이 한 가지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 화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A에 따르면 ㉠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나 화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상적인 관찰 조건에서 갑이 높은 빌딩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 빌딩 옆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듯 보였다고 하자. 그래서 갑은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은 광장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행사를 위해 설치한 사람 모양의 인형들이었다. 갑에게 자신의 관찰은 분명한 것으로 느껴졌기에, 갑은 1층으로 내려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갑 스스로 증거가 미심쩍다고 여겼거나 타인으로부터 확인을 요구받았더라면 갑은 확인했을 것이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만큼 자신의 경험을 확신했던 것이다.

A에 따르면 이 경우 갑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갑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렵다. A는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오직 그 경우에만 그 행위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A에 따르면 위 예에서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갑의 주장 행위는 그 자체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갑의 주장 행위는 인지적 착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에게는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 A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거나 주장하는 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의 예와 같은 허용 가능한 수준의 태도이나 인지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의 습득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적극적인 회피 태도라고 말한다. 그러한 태도를 지닌 주체에게 책임이 귀속됨은 물론이다. 아주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확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가짜 뉴스를 신봉하여 전파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자명하다.

- ①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어떤 것도 인지적 착각이 아니라면, ㉠은 약화된다.
- ② 가짜 뉴스를 신봉하여 전파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면, ㉠은 약화된다.
- ③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행위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은 약화된다.
- ④ 정상적인 관찰 조건에서의 거짓 주장은 언제나 적극적인 회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은 강화된다.
- ⑤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인지적 착각에 불과한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면, ㉠은 강화된다.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조건문의 부정이 약화 문제 풀이의 기본.
- 논증을 다 이해하고 풀 필요는 없음.
- 장치 ‘A이다. B때문이다.’

전제 : B

결론 : A

숨은전제 : $B \rightarrow A$

이는 A이면서 B인 대상이 존재함을 함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장치 'A는 어떤 것도 B가 아니다.' = A는 모두 B가 아니다.

$A \rightarrow \sim B$

우리반 학생은 누구도 남자가 아니다.

우리반 학생 $\rightarrow \sim$ 남자

- A일 때 오직 그 경우에만 B이다. (표현의 변주에 주의할 것)

$B \rightarrow A$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A는 언제나 B이다.

$$A \rightarrow B$$

- A가 언제나 B인 것은 아니다.

$$(A \ \& \ \sim B) \text{가 존재}$$

Part 3. 논증 평가 유형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7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 ‘가설의 약화는 그 반례를 찾는 것이다. 강화는 부합사례를 찾는 것이다.
가설에 대한 부정문과 부합 사례를 만드는 것에서 문제 풀이가 시작된다.’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8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 ‘실험은 집단마다 상이한 독립변수(원인) 처리 후 종속변수(결과) 차이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

-> 그 모호한 판단이 정답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보기를 구성하지 않음

Part 3. 논증 평가 유형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9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실험의 강화는 일치법과 차이법으로 설명된다.
실험의 약화는 반례다.’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0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대립 가설을 활용한 문제는 리트에서도 보편적이지는 않다.’

논증 평가 예제 5 (정답 ㄴ)

27.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배심원들이 확률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나 원고 승소 평결을 내리기 주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를 설명하는 <가설>이 있다.

<가설>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증거는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배심원의 평결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된다.

즉 “피고에 책임이 있을 확률이 80%이다.”라는 증언과 “맞을 확률이 80%인 증거에 근거할 때 피고에 책임이 있다.”라는 증언은 배심원들이 받아들이는 데에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모의 배심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건 개요를 읽게 한다.

“갑은 같이 산책 중이던 자신의 개를 친 혐의로 버스 회사 B를 고소했다. 갑이 사는 도시에는 파란색 버스만 운행하는 회사 B와 회색 버스만 운행하는 회사 G, 2개만 있는데, 갑은 색맹이어서 사고를 낸 버스의 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모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둘로 나눈 뒤, 집단 1에게는 조사관의 증언 X만을, 집단 2에게는 조사관의 증언 X와 Y 모두를 제시한다.

X: 타이어 매칭 기술을 적용한 결과 B의 전체 버스 10대 중 8대와 G의 전체 버스 10대 중 2대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타이어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Y: 나는 타이어 자국 증거에 근거해서 B의 버스가 원고의 개를 찼다고 본다.

모의 배심원들로 하여금 B의 버스가 실제로 개를 찼을 확률을 제시하고 B에 대한 평결을 내리도록 했다. 실험 결과, 모의 배심원이 B에 책임이 있을 확률로 제시한 값인 ‘주관적 확률’은 두 집단이 같았고, 각 집단에서 B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모의 배심원의 비율인 ‘원고 승소 평결률’은 두 집단 모두에서 주관적 확률보다 낮았다.

<보 기>

- ㄱ. 집단 1의 원고 승소 평결률이 집단 2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면, <가설>은 약화된다.
- ㄴ. 주관적 확률과 원고 승소 평결률 사이의 차이가 집단 2보다 집단 1에서 유의미하게 크다면, <가설>은 강화된다.
- ㄷ. 만약 회색 버스가 갑의 개를 찼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두 집단에게 추가로 제공되었을 때, 집단 1보다 집단 2에서 원고 승소 평결률이 유의미하게 더 낮아졌다면, <가설>은 약화된다.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증거’

-> 실험과의 포섭이 중요

- 실험 강화 약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
: 어려워지는 것은 ‘표현’

- 약화? ‘반드시 부정되어야, 즉 양립불가능 해야 함.’

Part 3. 논증 평가 유형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1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약화는 양립불가다.’

[기초 논리]

- 양립 가능? 양립 불가?

양립 불가만 아니면 모두 가능

- 모순, 반대, 소반대

모순 = 부정 = 배타적 선언

모순과 반대는 양립 불가

양립불가라고만 해서는 모순인지 반대인지 알 수 없음

- 양립불가는 조건문의 다른 표현

Part 3. 논증 평가 유형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밀줄이 나온 경우 밀줄을 따라 풀이하자.**’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밀줄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예시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자.**’

[선지 원리]

- 방해 : 두번째 문단, 많다와 적다.
- 매개로 결합 : 마지막 문단, 있다와 없다.

Part 3-2. 실험

○ 실험 핵심 SKILL 1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실험 결과를 먼저 읽고, 그 후 필요시 실험 배경을 읽어라.

실험 배경에는 실험을 해석할 원리 등이 담겨있다. 추론적 사고를 하라.’

